

뉴스생산 환경 및 조직과 기자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가 언론의 전문성,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Political Tendency and the Degree of Freedom during Performance on the Perception of Journalists on the Quality of the Press

홍주현*, 최선영**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화여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Ju-Hyun Hong(joohssy@kookmin.ac.kr)*, SunYoung Choi(choisy@ewha.ac.kr)**

요약

이 연구는 언론인들이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 공정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뉴스생산 환경의 차이,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일치도, 기자들의 업무 수행 자유도에 따라 언론인이 전문성과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매체 종사자들이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들보다 자신들의 보도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둘째,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 종사자 간에 조직의 정치 성향 일치도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났고, 이러한 인식이 언론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업무 수행 자유도가 높을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업무를 전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소속 매체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 의식조사’의 설문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속 매체에 따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 측면에서 뉴스 생산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측면의 의의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기사의 질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뉴스 생산 환경의 정치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중심어 : |매체 환경적 특성 | 정치적 성향 | 업무 수행 자유 | 언론의 전문성 | 언론의 공정성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hat ar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perception of press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journalist in the process of their news production.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 difference between mainstream media and online media, the political tendency and the degree of freedom during working effected on the judgement of the freedom of press based on the model of Shoemaker and Reese' hierarchical model. As a result, Research finding is as follows: First, online media journalist evaluated the fairness of press higher than offline media journalists. Second, the consistency of political tendency of offline media is different from online media. Online media journalists evaluated the fairness of the press higher than offline media journalists. Finally, the degree of freedom during performance is the most importance factor which affects the evaluation of press fairness. This study highlights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perception of journalists on the quality of the press based on the survey data which have conducted by Korean press foundation This study implicates how working environment is importance in journalist's writing as a journalist. The freedom of press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news production becaus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evaluation of the fairness and the professionalism of press reveals the quality of press.

■ keyword : |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ress | Political Tendency | the Freedom of Work | the Quality of News |

I. 서론

“더 이상 종이 신문은 없습니다(Stop press)”. ‘30년의 전쟁’이라는 특집 기사를 종이신문에 마지막으로 게재한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2016년 3월 ‘디지털 챕터’(digital chapter) 로의 전환을 결정했다[1]. 신문 구독자의 매체 접촉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전통적 방식의 신문 제작방식과 유통, 배급이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언론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환경은 급변하는 중이다[2]. 우선 인터넷 고도화와 모바일 미디어 기기 확산, 뉴스 콘텐츠 플랫폼 증가는 매체 간 경쟁상황을 심화시켰다. 문화관광체육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포함한 우리나라 언론사는 2014년 말 기준 5,950건으로 등록제 시행 첫 해인 2005년 286건에 비해 20.8배나 증가했다[3]. 일간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여 정기간행물의 양적 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이다. 언론업계 종사자들의 직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작 관행도 변화하는 중이다. 그동안 종이신문 기자들은 전문직 저널리스트로서 지면의 내용, 크기, 배치 등과 같은 편집권을 추구하면서 언론사 관행에 따라 기사를 생산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뉴스유통에서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뉴스배치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서 제작 관행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 생산의 내적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사 생산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매체 전통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존 언론사 편집국 데스크들은 제작 및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위기에 있어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을 편집권의 추구라는 견해를 보여[4][5]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관행은 여전히 기존 언론사 뉴스생산 구조 기준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서 직접적인 뉴스 생산자인 기자의 업무 수행과 기자의 질, 이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사회 언론의 건강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언론사 및 인터넷 언론사 제작 기자들의 인식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학술적 관점에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 사회학적 관점에서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and Reese, 1991)는 언론사 조직관행이나 언론인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6]. 이를 근거로 보면 게이트키퍼를 거치는 전통적인 언론사 소속 기자는 기사 작성 관행을 유지함으로써 업무 수행 자유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7]. 반면 인터넷 매체로 출발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 기자는 업무 수행 자유도에 있어서 받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인터넷 매체는 소규모 대안 언론으로 출발한 경우가 많아서 보도 관행과 조직의 영향은 기존 언론사와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의 소속 매체 특성 및 조직과 기자의 정치 성향 일치도, 업무 수행 자유도를 중심으로 보도 및 기사의 질에 대한 조직과 기자 개인의 인식을 비교하되, 전문성과 공정성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는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뉴스생산 환경 차이가 기사작성자인 기자가 전문성과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조직과 기자 개인의 정치 성향 일치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 볼 것이다. 보도의 질로 나타나는 최종 결과물과 생산과정에 대한 언론종사자들의 인식은 개인과 조직의 관행 및 이념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 스스로 업무 환경 자유도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과물로서 뉴스 콘텐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뉴스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뉴스 생산 결과물인 기사와 기자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미디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뉴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그림 1]과 같이 개인, 미디어 관행, 조직, 미디어 외적인 차원, 이데올로기 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석한 슈메이커와 리즈의 연구[8]는 오늘날 디지털 뉴스생산이 보편화된 시대에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언론사의 관행이나 조직에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 매체의 경우 조직 구성이나 관행이 기존 언론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성, 조직, 제도를 담은 그릇으로서의 미디어 개념은 네트워크 미디어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힘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해야 한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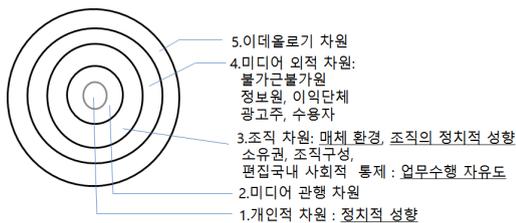


그림 1.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1991)
: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림 1]의 계층모델을 근거로 조직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뉴스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최근 디지털로 바뀐 미디어 환경과 연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리즈와 슈메이커는 초기 계층모델을 발전시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정모델을 최근 연구를 통해 정교화하여 분석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은 가장 미시적인 차원으로 기자의 창의성, 전문적 실행자를 일컫는다. 사회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어떠한 전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가 등에 따라 개인적 단계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뉴스생산자의 개인적 기질, 그들이 추구하는 뉴스가치, 전문적인 역할,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미디어 관행은 미디어 수행구조를 즉시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행은 수행에 의해 구성되는데 명시되지 않은 규칙이나 의례화 규범을 의미한다.

셋째, 뉴스 콘텐츠는 조직적 생산을 통해 나온 산물이다. 그러나 게이트키퍼와 같은 편집국의 통제는 뉴스생산 환경의 변화로 유동적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언론사 인수합병에서부터 블로그, 소셜미디어 운영 같은 새로운 매체 형태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에 기존 언론사와 온라인매체같은 신규 언론사는 생산의 내적환경에 차이가 있다. 뉴스 편집 기능을 중심으로 매체 환경을 분석한 더즈(Deuze,2003)는 뉴스생산과정에서 편집자의 영향력과 조직의 뉴스가치에 대한 연구결과로 편집자의 조정과 통제가 강한 조직으로 오프라인의 신문은, 편집자의 조정과 통제가 약해서 정보가 분산되는 조직으로 인터넷 매체를 예로 들었다[9]. 편집자의 조정과 통제가 강하다는 것은 엄격한 게이트 키퍼과정을 통해 뉴스가 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기자가 기사를 쓰는 위계질서가 있는 오프라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는 편집자의 조정과 통제가 약해 상대적으로 시민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누구나 자유롭게 취재,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9]. 게이트 키퍼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편집국의 권위 등과 같은 뉴스생산 환경은 기자의 직무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뉴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넷째,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외적 요인으로 광고주나 이용자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모바일 기기 이용으로 기사에 대한 반응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뉴스제작 관행 및 조직의 게이트키퍼에도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이라는 이데올로기 요인이 기사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주현(2016)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이슈 분석연구에서 정권과 정치적 성향이 일치할 경우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을 지지했고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10]. 기자가 속한 언론사와 개인의 정치 성향의 일치여부는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매체 환경, 정치 성향, 업무수행의 자유도

미디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매체 환경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언론활동이 위계에서 장(fields)과 네트워크(networks)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 측정하거나 영향력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는 쉽지 않다. 실제로 소속 매체에 따라 기자들이 기사의 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드물어서 뉴스생산자 개인과 조직 내외부의 환경, 정치적 성향이라는 요인이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뉴스생산 과정의 차이가 기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뉴스생산 환경을 크게 오프라인 기반의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기반의 매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오프라인 매체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발행할 경우 주류 인터넷 언론으로, 인터넷 기반의 언론을 독립 인터넷 언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11]. 전통적으로 소속 언론사에서 기사작성 훈련을 받고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치는 주류 언론 기자와 달리 시민기자나 자유기고 기자가 작성한 인터넷매체 기사는 뉴스의 제와 기사 형식,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신문법은 기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인터넷 매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때문에 뉴스생산 환경은 더욱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기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기사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자 한다. 기자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정부 관련 이슈를 다룰 때 동일 사안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전혀 다른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자의 정치 성향과 조직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면, 정부 관련 이슈를 다루거나 여당, 야당, 선거 관련 이슈를 다룰 때 기자의 내적 갈등이 심할 수도 있다. 소속 매체의 뉴스 생산 환경이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는 매체 속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 위계를 반영하는 직급에 따라 정치 성향의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매체에 따라, 직급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것이다.
 - 1-1. 온라인 매체 기자의 정치적 성향 차이보다 오프라인 매체 기자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클 것이다.
 - 1-2. 임원의 경우 평기자보다 조직과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을 토대로 뉴스생산 환경의 차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유롭다고 인식하는 업무 수행 자유도(Freedom to conduct a business)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개념은 얼마나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관행이 있는지, 게이트 키퍼 과정에서 기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등 기사 취재 및 편집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의미한다[12]. 여기에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부터 직업의 안정성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언론의 전문적 자율성은 개인적 차원과 미디어 조직 차원, 미디어 제도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기사를 쓸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개인차원으로,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는 미디어 조직 차원으로, 모든 종류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운지를 의미하는 것은 제도 차원이라 할 수 있다[13]. 이 연구는 여러 차원 중에서 개인적 차원과 조직 차원에서의 기자의 자율성(autonomy)이 얼마나 있는지를 업무 수행 자유도로 개념화했다. 기자들이 정보를 선택하고, 이야기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더즈(2003)가 제시한 바와 같이 편집자의 권한과 통제가 강한 조직에서 업무 수행의 자유도가 더 낮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9]. 반면, 조직이 작고, 구성원 간에 위계질서가 약하고 자유로운 조직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유도가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2.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간에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간에 기사 선택 및 작성, 앵글 설정의 자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간에 언론 활동 자유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간에 언론의 자유 제한 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을 토대로 기자의 정치적 성향 자체보다도 기자가 자신이 속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가 기자의 직무수행과정과 기자의 질에 대한 인식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게이트 키퍼링 과정이나 뉴스가치 측면에서 기사를 선택할 때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자의 정치적 성향과 언론사의 정치성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치성향의 일치도’가 업무 수행의 자유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언론에 대한 평가는 기자의 질로 살펴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성(professionalism)과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13]. 보도의 전문성은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를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보도했는지를 의미한다. 전문성은 직업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슈메이커와 리즈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격증은 없지만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뉴스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3. 기자 개인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에 차이가 날 때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날 것이다.

- 3-1.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클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 3-2.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클수록 언론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언론 보도의 전문성은 기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널리즘 측면에서 사안이 얼마나 정확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졌는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는지를 의미한다. 언론 보도의 공공성(Publicness)은 공적 매체로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공적 영역에서 언론이 다양한 공중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관점에서 언론의 공공성을 언급한다[14]. 환경감시 기능, 비판 기능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등 언론의 공

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뜻한다.

결국 기자로서 교육을 받은 정도나 기자가 속해있는 언론사에 따라 언론 보도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전문적인 기자가 취재 편집하고 조직의 게이트 키퍼링이 철저하고 위계적인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들이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반면, 뉴스 제작과정이 단순한 온라인 매체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들보다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낮게 평가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네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4. 뉴스생산 환경의 차이, 기자와 조직의 정치 성향의 차이 성향의 차이, 업무수행 자유도가 언론의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설정을 토대로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적 틀은 [그림 2]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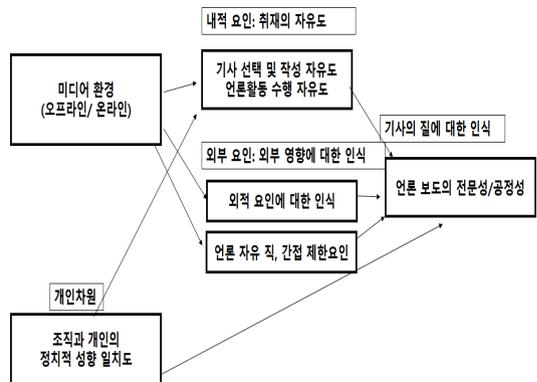


그림 2. 연구의 이론적 틀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뉴스생산 과정에서 매체의 차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나 보도의 질에 대한 기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언론인 의식조사’ 설문 원시 자료(raw data)

를 2차 분석했다. 언론인 의식 조사는 현업 언론인들의 언론활동과 직업의식, 근무환경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초자료이자 공공데이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 가장 최근 조사자료인 2013년 데이터(2015년 공개)를 활용했다. 여러 설문항 중에서 이 연구에서 중요 개념으로 선정한 문항만 추려서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절차를 거쳐 중요 개념으로 선정한 요인들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조직 차원에서 뉴스생산 환경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적 성향의 일치도, 직무과정의 업무수행 자유도이다. 뉴스생산 환경은 오프라인 매체인지, 온라인 매체인지로 구분하였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조직과 정치적 성향의 일치 정도를 보았으며, 조직 차원에서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보았다. 종속변인은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로 선정했다.

표 1. 연구 설계

| 변인 | 주요 변인 | 분석 내용 | 분석 방법 |
|-------|---------------------|----------------------------------|------------------|
| 독립 변인 | 조직 차원 | 뉴스 생산 환경 | 중다 회귀 분석 / 빈도 분석 |
| | 기자의 개인적 요인 | 조직과의 정치적 성향 일치도 | |
| | 직무 과정에서 자유도 (내적·외적) | 내적:업무 수행 자유도 외적:외부요인으로부터의 자유도 | |
| 종속 변인 | 저널리즘에 대한 평가 | 언론 보도의 질 | |

2. 분석방법

언론 보도의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이는 여러 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 방법은 독립변인을 단계별로 투입해서 최종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변인을 제외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3. 분석 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3 언론인 의식조사’(2015년 공개)에 설문 응답자로, 이 조사에서 표본 추출한 언론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

국의 언론사를 신문사·방송사·인터넷 언론사·통신사로 구분하여 지역 할당을 통한 체계적 표집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1차 원시 자료를 토대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전국 종합일간지 기자 293명과 지상파 3사 111명을 오프라인 매체의 언론인으로 선택했고, 온라인 매체로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넷 신문사 종사자 86명을 선택해 최종 분석 대상자는 490명으로 선정하였다[표 2].

표 2. 분석 대상 언론인 분포

| 구분 | | 인원 |
|---------------|--------|-----|
| 오프라인 매체 (404) | 일간지 | 293 |
| | 지상파3사 | 111 |
| 온라인 매체 (86) | 언론사닷컴 | 25 |
| | 인터넷 신문 | 61 |
| 전 체 | | 490 |

분석 대상 기자들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차장 이상이 156명, 평가자가 334명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분석 대상 언론인 직급별 분포

| 직급(명) | 빈도 |
|-------|-----|
| 차장 이상 | 156 |
| 평가자 | 334 |
| 전체 | 490 |

4. 주요 변인에 대한 설문 문항

뉴스제작 환경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로 구분했으며, 온라인 매체에는 인터넷 언론사와 오프라인 매체의 인터넷 언론을 포함했다. 언론인 의식조사에서는 이념적 성향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본인과 조직의 이념적 성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개인과 조직의 이념적 성향의 차이를 ‘개인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차이’로 개념화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는 기사를 작성할 때 앵글, 편집의 자유(4점 척도)를 측정했고, 언론 활동의 자유를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기자의 내적 검열부터, 외부 요인까지 계층모델에서 언급한 요인을 중심으로 측정했다. 기자의 질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5점 척도)로 측정했다.

10 매우 진보 10 매우 보수이며, 정치적 성향 차이 = (개인의 정치적 성향 - 조직의 정치적 성향)으로 측정했다.

IV. 분석결과

1. 뉴스생산 환경 및 직급별 정치 성향과 업무수행의 자유도

먼저 이 연구에서 중요한 독립 변인으로 상정한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뉴스생산 환경과 직급별로 분석했다. t 검정 결과 뉴스생산 환경별로 개인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차이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체 기자들이 조직과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기자들의 경우 조직과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오프라인 매체보다 크지 않았다. [표 4]를 보면 오프라인 매체 기자의 조직과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1.56으로 온라인 매체 기자의 -.81보다 적게 나타났다. 척도 측정에서 0점이 매우 진보, 10점이 매우 보수이므로 개인보다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뉴스생산 환경에 따른 정치 성향 차이 t-test

| 뉴스생산 환경 | 정치적 성향 차이[15] (표준편차) | t |
|---------|-------------------------|----------|
| 오프라인 매체 | -1.56(2.06) | -3.124** |
| 온라인 매체 | -.81(1.82) | |

**p<.01

다음으로 직급별로 개인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차이를 t 검정한 결과, 차장 이상의 임원급보다 평가자가 조직과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1). 평가자들이 조직이 더 보수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표 5].

표 5. 직급별 정치적 성향 차이 t-test

| 직급 | 정치적 성향 차이 (표준편차) | t |
|-------|---------------------|---------|
| 차장 이상 | -.99(2.10) | 3.212** |
| 평가자 | -1.63(1.97) | |

**p<.01

개인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차이 분석 결과, 온라인 매체보다는 오프라인 매체의 기자들이, 차장 이상보다는 평가자들이 자신보다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 뉴스생산 환경

이 오프라인 매체에 비해 자유롭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단순해 조직과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오프라인 매체의 경우 뉴스생산 과정에서 게이트 키핑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위계적인 문화[6]로 인해 조직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뉴스생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상정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2. 뉴스생산 환경별 언론 자유도에 대한 인식

뉴스생산 환경별로 기사 취재 작성 시 자유도와 언론 전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간에 기사 선택 및 작성, 앵글 설정의 자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간에 소속 매체의 편집 및 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온라인 매체 종사자가 기사 취재 작성 시 자유도가 약간 높았으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언론 전반에 대한 인식차이의 경우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들이 약간 높았으나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6].

표 6. 뉴스생산 환경별 기사 취재 작성 시 자유도 및 언론 전반에 대한 자유도 차이 t-test

| 뉴스생산 환경 | 기사 취재 작성 시 자유도 차이(표준편차) | t |
|---------|-----------------------------------|-------|
| 오프라인 매체 | 3.03(.061) | -.960 |
| 온라인 매체 | 3.09(.545) | |
| 뉴스생산 환경 | 언론 전반에 대한 인식: 자유도 차이 (표준편차) | t |
| 오프라인 매체 | 3.01(.948) | 2.749 |
| 온라인 매체 | 2.72(.890) | |

3. 개인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기사의 질에 대한 인식 상관관계 분석

개인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와 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개인이 조직보다 보수적일수록 기사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으며(.212), 전문성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했다.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전문성도 높다고 인식했다.

표 7. 정치적 성향과 기사의 공정성·전문성

| | 정치적 성향 차이 | 공정성 인식 | 전문성 인식 |
|-----------|-----------|---------|--------|
| 정치적 성향 차이 | 1 | | |
| 공정성 인식 | .212*** | 1 | |
| 전문성 인식 | .147*** | .402*** | 1 |

**p<.001

4. 기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사의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뉴스 생산 환경, 정치적 성향의 차이, 업무 수행의 자유도로 보고 어떤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론사 유형, 정치적 성향 차이,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가 언론의 공정성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것으로 대한 나타났고(F=48.357, p<.001) 모델의 설명력은 28.5%로 나타났다.

[표 8]의 회귀 분석 결과 타당성에 대해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VIF값이 1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변인 중 언론사 유형은 명목 변수이므로 더미변수로 변환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언론사 유형(t=1.987, p<.05),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차이(t=2.293, p<.05),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t=12.766, p<.001), 기사취재 작성 시 자유도(t=-2.655, p<.01)가 언론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유형, 정치적 성향 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에 대한 회귀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온라인 매체의 기자들이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조직보다 보수적일 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함을 의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자유도가 클수록 언론의 공정성 평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기사취재 작성 시 자유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으로 나타났는데, 기사 취재 작성 과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의미이다.

표 8.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 변수 | B | SE | β | t | R ² | F |
|------------------|-------|------|-------|-----------|----------------|-----------|
| (상수) | 1,642 | .188 | | 8,717 | .285 | 48,357*** |
| 언론사 유형 | .165 | .083 | .078 | 1,987* | | |
|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차이 | .037 | .016 | .094 | 2,293* | | |
|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 | .449 | .035 | .527 | 12,766*** | | |
| 기사취재 작성시 자유도 | -.146 | .055 | -.108 | -2,655** | | |

*p<.05, **p<.01, ***p<.001

독립 변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인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비교할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β=.527), 기사취재 작성 시 자유도(β=-.108)순으로 언론의 공정성 평가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자유도가 언론의 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9.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설명력

| 변수 | B | SE | β | t | R ² | R ² 변화량 | F |
|-------------------|-------|------|-------|-----------|----------------|--------------------|-----------|
| (상수) | 1,642 | .188 | | 8,717 | | | 48,357*** |
| 업무수행 과정 자유도 | .449 | .035 | .27 | 12,766*** | .262 | .262 | |
|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차이 | .037 | .016 | .094 | 2,293* | .270 | .007 | |
| 기사취재 작성시 자유도 | -.146 | .055 | -.108 | -2,655** | .279 | .010 | |
| 언론사 유형 | .165 | .083 | .078 | 1,987* | .285 | .006 | |

***p<.001

단계선택방식을 이용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9]의 결과가 나타났다. 언론사 유형, 정치적 성향 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회귀식(F=48.357,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가 언론의 공정성 인식에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고 R² 변화량을 26.2%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선택방식을 이용해 언론의 전문성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만 언론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가 언론의 전문성 인식에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고, R² 변화량을 27.2%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기자들의 업무 수행 자유도와 개인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차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11]에서 보듯이 t=-2.830, 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²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업무 수행 자유도는 26.2%, 정치적 성향 차이는 0.7%, 상호작용효과는 2.2%로 언론의 공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언론의 전문성에 대한 설명력

| 변수 | B | SE | β | t | R ² | F |
|-------------------|-------|------|------|-----------|----------------|-----------|
| (상수) | 2.139 | .112 | .272 | 19.153*** | .272 | 38.842*** |
| 언론사 유형 | .082 | | | 1.871 | | |
|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차이 | .084 | | | 1.873 | | |
|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자유도 | .224 | .036 | .272 | 6.232*** | | |
| 기사취재 작성시 자유도 | .055 | | | 1.214 | | |

*p<.05, **p<.01, ***p<.001

표 11. 업무 수행 자유도와 언론의 공정성 관계에서 개인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차이의 조절 효과

| 단계 | 변수 | B | β | t | R ² | R ² 변화량 |
|------|--------------|-------|-------|-----------|----------------|--------------------|
| 1 단계 | 상수 | 2.503 | | 80.087*** | .262 | .262 |
| | 업무수행 자유도(A) | .437 | .512 | 13.170*** | | |
| 2 단계 | 상수 | 2.503 | | 80.879*** | .269 | .007 |
| | 업무 수행 자유도(A) | .438 | .513 | 12.573*** | | |
| | 정치적 성향 차이(B) | .042 | .107 | 2.653** | | |
| 3 단계 | 상수 | 2.525 | | 78.471*** | .291 | .022 |
| | 업무 수행 자유도(A) | .436 | .536 | 13.340*** | | |
| | 정치적 성향 차이(B) | .031 | -.101 | 1.926** | | |
| | A×B | -.046 | -.114 | -2.830** | | |

p<.01, *p<.001

V. 이론적 모델 수정 및 결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서 제시한 이론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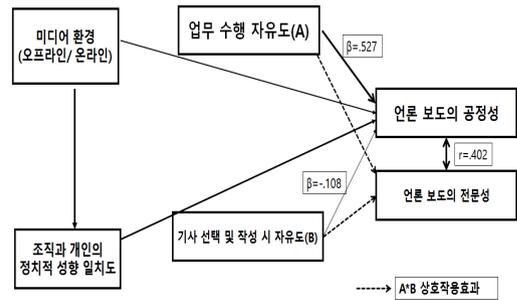


그림 3. 기사의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수정된 이론 모델

뉴스생산 환경에 따라 기자 자신과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차이가 있었다. 오프라인 매체의 기자가 자신보다 조직이 더 보수적이라고 인식했으며, 이러한 인식 차이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이 조직보다 보수적일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 기자 간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있고, 오프라인 매체 기자들이 조직과 정치적 성향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 간에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매체의 기자들이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언론의 전문성도 높게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 기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상정했는데, 기자들이 언론 활동 전반에 대해 자유롭다고 인식할수록(업무 수행 자유도가 높을수록)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β값 .527) 기자들이 기사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자율성이 기사를 쓰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업무 수행 자유도를 꼽을 수 있다(β값 .108).

업무 수행 자유도와 기사 선택 및 작성 시 자유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r=.402$), 상호작용 효과는 언론 보도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이론적 모델을 보면, 기자들의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차원의 변인으로 뉴스제작 환경을 들 수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조직과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기자들이 한국 언론의 질을 평가하는데, 본인의 업무 수행 자유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독립성, 자율성이 기사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오프라인 매체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매체의 경우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고,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기에 기자들이 매체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서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매체 기자들의 기사의 질에 대한 평가가 오프라인 매체 기자들의 평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온라인 매체 기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조직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오프라인 매체의 경우 언론사 수도 적고, 입사도 어려워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지 않아도 기자로 근무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조선, 동아 같은 보수 성향의 언론과 경향, 한겨레 같은 진보 성향의 언론의 정부 정책에 대한 보도 태도를 비교해보면, 이슈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태도를 정하기보다는 정부와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지가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런 점에서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기자 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낮추고, 나아가 언론의 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현장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기자가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고, 전문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쟁점화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프라인 매체의 기자들이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조직의 정치적 성향과 차이가 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직과의 정치적 성향 괴리가 클수록 조직의 게이트 키퍼과정이나 데스크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언론이 이슈를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이 조직보다 보수적일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한 것은 조직이 정부의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직 내적 차원에서 업무 수행 자유도가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기사가 근무하는 조직의 위계질서, 조직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 활동 전반에 대해 자유롭다고 인식할수록 기사의 내용에 데스크로부터 간섭이 덜하고, 자율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인식하기 쉽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유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 전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널리즘 측면에서 기자들이 조직의 내적 차원에서 간섭을 덜 받고, 자율적으로 기사를 쓴다면, 언론이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직업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와 같은 뉴스생산 환경 차이에 따라 기사의 질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은 흥미롭다. 오프라인 매체와 달리 엄격한 게이트 키퍼이나 위계적 조직 문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많은 온라인 매체의 기자들이 오히려 기사의 질을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 다음의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온라인 매체의 기자의 정치적 성향이 조직의 정치적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태도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정치적 성향이 일치할 경우 보도 프레임이나 사실을 구성하는데 의견 충돌이 덜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배경은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독립적으로 기사를 쓰고, 결과적으로 기사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업무 수행 자유도가 높을수록 기자들이 언론의 질을 높게 평가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매체의 기사의 질이 낫다는 평가와 다르다. 기자들은 자신이 기사를 작성할 때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인지를 뉴스생

산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무 수행 자유도와 기사 취재, 편집, 앵글 선택의 자유도는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 언론의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기자가 뉴스를 취재하고, 기사화하는데 자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근 국정조사특위 기간 MBC 새내기 기자들과 기존 언론사의 기자들의 자기반성적 고백 현상은 이러한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기자들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한국 언론의 질을 평가하는데 업무 수행의 자유도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조직의 환경적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클수록 언론의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발견이다. 기자가 이슈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기자의 정치적 성향이 조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자들이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느끼고, 본인이 생산하는 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기자들의 의식조사에 대한 원시자료 2차 분석을 통해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16]하였으나 다음 몇 가지 한계를 스스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2013년 데이터로 최근 모바일 플랫폼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는 언론 환경을 시의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기존 언론사의 온라인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조적인 설문으로 인해 온라인 매체와 기존 언론을 구분한 것은 분석 유목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속연구로 보완하여야 할 점이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 간에 직급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자료에서 직급을 동일하게 분류했기에 그대로 분석함으로써 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끝으로, 한국 언론 전반의 공정성, 전문성을 종속 변인으로 상정해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 설명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언론인 의식조사라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분석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http://www.independent.co.uk/voices/the-independent-printed-edition-comes-to-an-end-but-the-dream-of-our-founders-shall-never-die-a6953006.html>
- [2] Full highlights of World Press Trends 2016 survey <http://www.wan-ifa.org/articles/2016/06/12/full-highlights-of-world-press-trends-2016-survey>
- [3] <http://stat.mcst.go.kr/mcst/resource/static/index/index03.html>
- [4] 김위근, “인터넷신문 뉴스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인터넷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pp.13-30, 2010.
- [5] 이충재, 김정기, “종합일간지 편집국장의 편집권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6호, pp.165-186, 2015.
- [6] P. J. Shoemaker and S. D. Reese, *Mediating the message :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ition, 1991. 김원용 역, *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7.
- [7] 홍경수, “방송뉴스제작에 있어서 기자·PD 협업의 시너지효과 탐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pp.164-176, 2011.
- [8] S. D. Reese and P. J. Shoemaker, *Media Sociology and the Hierarchy of Influences Model: A levels-of-analysis perspective on the networked public sphere*,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Vol.19, No.4, pp.389-410, 2016.
- [9] M. Deuze, “The Web and its Journalism : Considering the Consequence of Different Types of News Media,” Online. new media & society, Vol.5, No.2, pp.203-230, 2003.
- [10] 홍주현,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의 확산 과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269-287, 2016.
- [11] M. Deuze, “What is multimedia journalism 1?,”

Journalism studies, Vol.5, No.2, pp.139-152, 2004.

[12] Y. S. Praeli, *New Media and Freedom of Press*, Reuters Institute Fellowship Paper University of Oxford, 2010.

[13] R. G. Picard, *Journalists' Perceptions of the Future of Journalistic Work*,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Report(University of Oxford), 2015.

[14] L. Ahva, "What is "public" in public journalism," *Estudos em Comunicação*, Vol.9, pp.119-142, 2011.

[15] 홍주현, 김경희, *한국 사회에서의 뉴미디어 확산과 사회적 의제*,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보고서, 2016.

[16] 홍주현, 최선영, "뉴스생산 환경 및 조직과 기자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가 언론의 전문성,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방송학회 언론진흥재단 후원 세미나 발표, 2016.

최선영(SunYoung Choi)

정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영상콘텐츠(석사)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영상미디어(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 특임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 이용자 & 생산자 융합연구, 미디어 플랫폼, OTT서비스

저자 소개

홍주현(Ju-Hyun Hong)

정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9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언론학 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 연구학자

- 2013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소셜미디어, 여론, 네트워크 분석, 루머 확산